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과 약물사용과의 관계

이현숙* · 김광선** · 김광희** · 남길우** ·
민경원** · 이삼순** · 정찬희** · 이홍직*** · 박지현****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nd Drug
Uses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yun-Sook Lee* · Kwang-Sun Kim** · Kwang-Hoi Kim** · Gil-Woo Nam** ·
Kyeong-Won Min** · Sam-Soon Lee** · Chan-Hee Jeong** · Hong-Jik Lee*** · Ji-Hyun Park****

요약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통해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첫째, 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에 따른 약물사용 여부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카이제곱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중학생의 경우에, 성적이 낮은 경우에, 건강 요인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낮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그리고 인터넷 중독 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약물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factors and drug uses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was used for this study. It selected 73,238 cases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set and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Gender,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tatus, school level, academic record,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stress, level of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drug uses. Findings may be used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cope with drug uses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키워드

Korean High School Students, Drug U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Internet Addiction
중고생, 약물사용, 인구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인, 인터넷 중독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lhs2329@hanmail.net)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jihyunpark99@naver.com)

접수일자 : 2013. 04. 23

심사(수정)일자 : 2013. 05. 20

게재 확정일자 : 2013. 06. 21

1. 서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현격한 변화에 당면한 청소년기는 다양한 일탈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시기이다[1][2][3][4][5][6][7][8][9][10]. 본 연구는 이러한 일탈행동의 한 예로 중고생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는 음주나 흡연을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7][8][11]. 그러나 최근에는 술과 담배 이외의 약물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술이나 담배에 비하면 미약한 빈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접하는 약물에 대한 파악과 이러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 위험에 대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 특성 등의 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비중을 두었다[3][7][8][11][12][13][14][15][16][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는 인구학적 특성, 가족 특성, 건강특성, 학교 특성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약물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고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2009년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2009년도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이 원 자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출한 중고생 73,238명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약물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2009년도 자료는 전체표본 중 75,066명(97.6%)이 응답하였다.

2.2 변수의 소개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설문문 독립변수로 약물사용여부에 대한 설문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2.2.1 독립변수 : 인구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의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문항을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의 측정에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는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학교유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2.2 독립변수 : 건강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의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 우울여부 등의 문항을 중고생의 건강요인의 측정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은 상, 중, 하로, 우울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2.2.3 독립변수 : 인터넷 중독여부 요인

원 자료에서는 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 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간략형 K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으로 인터넷 중독여부를 측정하였다[17]. 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인터넷 중독으로 판단하였다.

2.2.4 종속변수 : 약물사용

약물사용은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의 여부를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 요인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SPSS WIN 17.0을 사용하여 첫째, 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에 따른 약물사용 여부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카이사승 검증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은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Factor	Variable	Category	Frequenc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Gender	Female	34,847 (47.58)
		Male	38,391 (52.42)
	Living w/ parents	No	12,027 (16.64)
		Yes	60,238 (83.36)
	Economic status	Low	17,913(24.46)
		Middle	34,253(46.77)
		High	21,072(28.77)
Level of school	Middle school	37,570(51.30)	
	High school	35,668(48.70)	
Academic record	Low	27,636 (37.73)	
	Middle	19,651 (26.83)	
	High	25,951 (35.43)	
Health factor	Subjective health	Low	5,999 (8.19)
		Middle	20,768 (28.36)
		High	46,471 (63.45)
	Subjective well-being	Low	9,912 (13.53)
		Middle	23,601 (32.23)
		High	39,725 (54.24)
	Level of stress	Low	11,475 (15.67)
Middle		29,669 (40.51)	
High		32,094 (43.82)	
Depression	No	45,865 (62.62)	
	Yes	27,372 (37.38)	
Internet addiction factor	Internet addiction	No	67,485 (92.14)
		Yes	5,753(7.86)

우선 인구학적 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38,391명 : 52.42%)이 여학생(34,847명 : 47.58%)보다 더 많았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는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경우(60,238명 : 83.36%)가 그렇지 않은 경우(12,027명, 16.64%)보다 더 많았으며, 가계의 경제수준은 중(34,253명 : 46.77%), 상(21,072명 : 28.77%), 하(17,913명 : 24.46%)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 유형에 있어서는 중학생(37,570명 : 51.30%)이 고등학생 (35,668명 : 48.70%)보다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하 (27,636명 : 37.73%), 상(25,951명 : 35.43%), 중(19,651명 : 26.83%) 순으로 많았다.

또한, 건강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인지에 있어서는 상(46,471명 : 63.45%), 중(20,768명 : 28.36%), 하(5,999명 : 8.19%)순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관적 행복에서도 상(39,725명 : 54.24%), 중(23,601명 : 32.23%), 하(9,912명 : 13.53%) 순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상(32,094명 : 43.82%), 중(29,669명 : 40.51%), 하(11,475명 : 15.67%)순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우울여부에 있어서는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45,865명 : 62.62%)가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27,372명 : 37.38%)보다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중고생중 5,753명(7.86%)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반면 67,485명(92.14%)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약물사용 여부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1,400명(1.91%)만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약물사용
Table 2. Drug uses

변수	범주	빈도(%)
Drug uses	No	71,838(98.09)
	Yes	1,400(1.91)

3.3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중고생의 약물사용

표 3은 중고생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chi^2=18.75 : p<.001$),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chi^2=265.11,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chi^2=89.29, p<.001$), 중학생의 경우에($\chi^2=11.50 : p<.001$) 성적이

낮은 경우에($\chi^2=42.55 : p<.001$) 약물사용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약물사용
Table 3. Drug us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Category	Drug uses Frequency(%)		χ^2
		No	Yes	
Gender	Female	34,261(98.32)	586(1.68)	18.75***
	Male	37,577(97.88)	814(2.12)	
Living w/ parents	No	11,589(96.36)	438(3.64)	265.11***
	Yes	59,356(98.54)	882(1.46)	
Economic status	Low	17,519(97.80)	394(2.20)	89.29***
	Middle	33,769(98.59)	484(1.41)	
	High	20,550(97.52)	522(2.48)	
Level of school	Middle school	36,789(97.92)	781(2.08)	11.50***
	High school	35,049(98.26)	619(1.74)	
Academic record	Low	26,991(97.67)	645(2.33)	42.55***
	Middle	19,334(98.39)	317(1.61)	
	High	25,513(98.31)	438(1.69)	

*** p<.001

3.4 건강요인에 따른 중고생의 약물사용

표 4는 중고생의 건강 요인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chi^2=65.63 : p<.001$),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chi^2=106.57 : p<.001$), 스트레스 수준이 적은 경우에($\chi^2=39.83 : p<.001$), 우울한 경우에($\chi^2=255.81 : p<.001$) 약물사용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건강요인에 따른 약물사용
Table 4. Drug uses according to health factors

Variable	Category	Drug uses Frequency(%)		χ^2
		No	Yes	
Subjective health	Low	5,802(96.72)	197(3.28)	65.63***
	Middle	20,396(98.21)	372(1.79)	
	High	45,640(98.21)	831(1.79)	
Subjective well-being	Low	9,597(96.82)	315(3.18)	106.57***
	Middle	23,148(98.08)	453(1.92)	

	High	39,093(98.41)	632(1.59)	
	Low	11,217(97.75)	258(2.25)	39.83***
Level of stress	Middle	29,216(98.47)	453(1.53)	
	High	31,405(97.85)	689(2.15)	
Depression	No	45,275(98.71)	590(1.29)	255.81***
	Yes	26,563(97.04)	810(2.96)	

*** p<.001

3.5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중고생의 약물사용

표 5는 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요인에 따른 약물사용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chi^2=175.37, p<.001$) 중고생의 약물사용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약물사용
Table 5. Drug use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Variable	Category	Drug uses Frequency(%)		χ^2
		No	Yes	
Internet addiction	No	66,327(98.28)	1,158(1.72)	175.37***
	Yes	5,511(95.79)	242(4.2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인터넷 중독요인이 중고생의 약물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중학생의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건강 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낮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인터넷 중독 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약물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고생의 약물사용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중학생이,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전달한다. 첫째, 남학생이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약물로 부터의 보호에 있어서는 남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약물사용을 비롯한 일탈행위에 있어서 남성 집단이 고 위험 군으로 제시된 연구에서는 참조집단의 문화나 그 영향, 또는 남성의 영웅심리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거나, 상대적으로 남성 집단에게는 관대한 사회적 시선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관련성(association)을 끊고 보다 건강한 문화와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약물사용이 아닌 긍정적인 동호회, 취미활동 등으로 집단 경험을 통해 이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집단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중고생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에게도 무료로 다양한 사회 문화활동과 학습체험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약물사용의 빈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중고생의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일탈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사용이 저 연령층에게 확산되어, 오히려 중학생의 약물사용이 고등학생의 약물사용수준을 추월하였다는 부정적인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기에 약물의 위험과 폐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의 약물사용 빈도가 여타 성적 하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학업의 부문에서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향상시켜 약물사용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중고생의 약물사용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약물 등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생의 심신의 건강 증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이라는 원인으로서의 약물사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상황의 귀결점으로서 약물을 선택한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듯하다. 향후에는 기존의 약물과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나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넘어, 쌍방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인터넷 중독 요인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경우에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중고생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올바른 인터넷 매체의 활용, 인터넷의 순 기능의 활용 등을 통해 오히려 이러한 약물의 위험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직 하다. 추가적으로 약물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일탈행위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더라도, 중고생이 인터넷이라는 기체를 이들의 학교를 비롯한 사회 문화생활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마련하였으면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고생 약물사용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수준, 우울여부, 그리고 인터넷 중독요인에서는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라 약물사용여부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고생들의 약물사용을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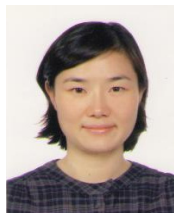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Yun, M., Jo, H. & Lee, H. "Effects of Internet Use and Alcohol Use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 Kyungsoong University, Vol. 25, No. 4, pp. 347-370, 2009.
- [2] Park, T. Jung, M. Jung, S. Park, H. Han, C. Hong, S. You, S. & Moon, K.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pp. 505-515, 2013.
- [3]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291-299, 2013.
- [4] Jin, H. & Bae, S.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2, pp. 193-221, 2012.
- [5] Nho, C. & Kim, 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39, pp. 39-68. 2012.
- [6] Suh, K. Kim, E. & Cho, S. "The Role Physical Activity and Addiction to Internet Game in Stress Responses and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9, No. 5, pp. 115-135, 2012.
- [7] Kim, D. Kim, Y. Kim, S. Jang, Y. Jang, M. & Park,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937-944, 2012.
- [8]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Problem-Drinking Behavior among Korea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8, No. 1, pp. 33-44, 2013.
- [9] Shim, J. Seoung, J. Lee, M. Song, S.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81-190, 2013.
- [10] Kim, S.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2, 2013.
- [11] Kangule, D., Darbastwar, M. & Kokiwar, P. "A Cross Sectional Study of Prevalence of Substance U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Male Tribal Youths",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y and Biomedical Sciences, Vol. 2, No. 3, pp. 61-64, 2011.
- [12] Banks, M. L. & Negus, S. S. "Preclinical Determinants of Drug Choice under Concurrent Schedules of Drug Self-Administration", Advances in Pharmacological Sciences, 2012
- [13] Galrea, S. Nandi, A. & Vlahov, D. "The Social Epidemiology of Substance Use", Epidemiological Reviews, Vol. 26, pp. 36-52, 2004.
- [14] Jeon, Y. "A Study on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s' Drug Abuse", Korean Bible Univers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2009.
- [15] Commission o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Informing America's Policy on Illegal Drugs : What We Don't Know Keeps Hurting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C. 2001.
- [16] Kokiwar, P. R. Jogdand, G. R. S. "Prevalence of Substance Use among Male Adolescents in an Urban Slum Area of Karimnagar District, Andhra Pradesh", In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55, No. 1, pp. 42-45, 2011.
- [17] Bauman, A. Phongsavat, P. "Epidemiology of Substance Use in Adolescence: Prevalence,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 55, pp. 187-207, 1999.

본고는 2013년도 한국전자통신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저자 소개



이현숙(Hyun-Sook Lee)

2011년 University of Edinburgh 졸업
 사회정책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
 학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선(Kwang-Sun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정찬희(Chan-Hee Jeong)

1995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희(Kwang-Hoi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흥직(Hong-Jik Lee)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복지, 사회복지 디지털 컨텐츠



남길우(Gil-Woo Na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신문팀장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박지현(Ji-Hyun Park)

2011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졸업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원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민경원(Kyeong-Won Min)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삼순(Sam-Soon Lee)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